학자를 만나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

“넓게 보고 깊게 공부하라”…원로학자가 전한 조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문명대 명예교수는…1941년 출생으로, 경북대 사범대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굴암 불상조각 연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중 울산 천전리, 대곡리 선사 암각화를 발견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는 러시아 연해주 발해사원지 발굴, 파키스탄 탁실라 간다라 유적 발굴 등을 진행하는 등 많은 발굴 성과를 냈다. 정년퇴임한 2006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을 맡으며, 왕성한 연구 ·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조각사〉〈한국의 불화〉〈한국불교미술사〉 등 50여 편의 저서와 300여 편의 논문을 집필했다. 불교미술사학 연구발전 공로로 지난해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불교사 연구하려 시작했던 공부
황수영 선생 만나며 미술사 전환
동국대博 학예연구사 재직하며
불적조사 중 반구대 암각화 발견
“암각화 발견 공신은 원효 스님”

80대지만 연구할 땐 여전히 현역
쌍계사 등 전각, 불상, 불화 연구
“불교미술사는 종합적 학문” 강조
새로운 불교미술 위해선 연구 필요
“종단 내 ‘불교유산원’ 설치돼야”

3월 25일 열린 동국대 박물관 특별전 ‘보묵천향(寶墨天香)’ 개막식. 전시의 하이라이트인 반구대 암각화 탁본 앞에서 한 원로학자가 개막식 내외빈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반구대 암각화 탁본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그는 반구대 암각화를 발견한 장본인이자 전시되어 있는 탁본을 찍은 주인공이다. 문 명예교수는 1971년 12월 암각화를 발견할 당시 현장 사진을 찍고 건탁(乾拓)을 진행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탁본은 1972년 3월 동국대 박물관 조사단이 뜬 것이다.

개막식에 앞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만난 문 명예교수는 반구대 암각화 발견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머리를 풀었다.

“원래는 원효 스님의 주석처를 찾고 있었는데 말이지….”

문 명예교수에 따르면 그는 원효 스님이 주석하며 〈초장관문(初章觀文)〉, 〈안신사심론(安身事心論)〉 등을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반고사(磻高寺)를 찾고자 했다. 당시 문 명예교수는 동국대 박물관 울산불적조사단의 책임자로 조사단을 이끌고 있었다. 울산 지역을 조사한 것도 신라시대 외항(外港)으로서 구법승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새로운 사원지를 발굴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1970년은 3년차 조사로 조사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되는 해였고, 반고사의 흔적을 찾는 것이 그해의 최대 목표였다.

일단 반구대를 찾아간 문 명예교수는 이곳이 절터임을 직감하고 경주 출신 골동품 상인에게 자문을 구하자 반구대 위 한모령에 절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동네 주민을 찾아가자 주민들은 ‘최경환’이라는 노인을 소개했다. 해당 위치의 지형을 제일 잘 알았기 때문이다.

문 명예교수를 만난 최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산길 따라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바위에 뭐가 새겨져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옆에 절이 있었다고 하고….”

문 명예교수는 ‘절 옆에 새겨져 있는 것은 마애불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곧장 최 노인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원이나 마름모 등 기하학적 문양들이 보였다. 그 아래에는 ‘랑(郎)’ 자가 무수히 있었다. 직감적으로 문 명예교수는 ‘이곳이 화랑들이 성인식을 했던 화랑의 유적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그는 건탁을 하며 4~5시간을 조사했다. 그날이 1970년 12월 24일로, 반구대 암각화 중 하나인 천전리 암각화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다.

1년하고 1일 후인 1971년 12월 25일 문 명예교수는 1~2km 떨어진 대곡리에서 암각화를 발견한다. 불교미술사학도였지만, 암각화 발견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10년을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암각화 연구에도 매진했다. 그렇게 내놓은 것이 1984년 〈반구대 암벽 조각〉이라는 역작이다. 원효 스님의 주석처를 찾겠다는 원력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벽화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반구대 암각화 발견의 일등공신이자 주역은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이 주석했다는 반고사를 찾다가 발견됐으니까요. 그 다음이 〈삼국유사〉를 통해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전한 일연 스님, 그리고 경주 골동품 상인, 최경환 노인이 반구대 암각화를 발견하게 했죠. 저는 이분들이 이끄는 대로 갔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힘이죠.”

반구대 암각화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올라가 있으며, 오는 7~8월 경 최종 등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명예교수는 “반구대 암각화는 신석기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우리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자 미술사의 기록들”이라며 “등재는 확실하다”고 확신했다.

“천전리 암각화를 보면 기하학적 문양들이 많은데, 이는 ‘문자’입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내려온 우리의 문자이자 신라 골필의 원형이죠. 문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역사 시대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신라 통일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 진흥왕인데 천전리 암각화는 신라왕실 김 씨들의 예배처였을 겁니다. 청동기와 신라의 역사와 문자가 있는 곳이 천전리 암각화입니다. 대곡리 암각화는 신석기의 유적입니다. 고래부터 멧돼지, 호랑이까지 바다, 육지동물 200여 점이 그려진 벽화는 세계에 유래가 없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들은 신석기부터 신라까지 한반도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최대 선사 유적 발견’이라는 유래가 없는 성과를 냈지만 문 명예교수의 본업은 ‘불교미술사학자’다. 역사학자가 되고 싶던 그는 집안에 반대에도 경북대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입학했고, 대구 지역 사찰 대학생회에서 활동하며 불연(佛緣)을 이어갔다.

본격적으로 문 명예교수가 불교미술사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군 제대 후 경북대 박물관에 근무하면서부터다. 박물관에서 문 명예교수가 한 업무는 유물 카드 정리였다. 그는 수만 점의 유물을 실측하고 특성을 파악하며 미술사의 기초를 알게 됐다. 경북대 대학원에서 ‘한국 석굴사원 연구’를 석사학위 논문으로 쓰면서 본격적으로 불교미술사학자의 길을 걷게 됐다.

박사학위를 동국대에서 받은 것은 황수영 동국대 교수와의 인연 때문이다. 국내 오악(五岳)을 중심으로 진행된 유적조사에 경북대 박물관 간사로 참여했던 그를 황 교수가 눈 여겨 봤고, 석사 이후 동국대 진학을 제안했다. 이에 문 명예교수는 망설이지 않고 동국대로 진학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문 명예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석굴암 불상조각 연구’다. 석굴암 내 전체적인 불상 조각에 대해 연구한 것은 문 명예교수가 처음이다.

‘불교미술’이라는 외길을 걸은 그가 보인 연구 성과는 가히 방대하다. 불교미술 관련 저서만 50여 권, 논문만 300여 편에 달한다.

우리나라 최초 불화 개설서인 〈한국의 불화〉(1977)는 관련 분야 연구를 위한 필독서이며, 〈불교미술개론〉(1980)은 최초의 불교미술개론서이기도 하다. 〈한국조각사〉(1980)와 〈한국불교미술사〉(1997)도 관련 분야 개론적 기틀을 만든 중요한 연구서로 평가 받고 있다.

최근에는 불교미술의 개론적 기틀을 잡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불교미술개론〉을 세상에 내놨다. 이 책은 1980년 편찬한 〈불교미술개론〉과 이를 수정·보완한 〈한국불교미술의 형식〉을 새로 수정해 간행한 것이다. 거의 20년 만에 리뉴얼한 것이다.

개론서인 만큼 이 책은 불교미술의 이해부터 건축·불상·불화·공예까지 한국의 불교미술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판 사진들은 전부 컬러로 교체했으며, 불복장과 같이 새로운 연구 성과들도 반영했다. 불교의 수(數) 개념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또한 60여 개의 각주와 190여 개의 도판 리스트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현재, 문 명예교수는 불교조각의 역사를 망라한 ‘불교조각사’ 집필에 매진 중이다. 이는 1977년 발간했던 〈한국조각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불교조각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해내는 대작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문 명예교수의 저작 작업은 한국불교미술의 이론적 뼈대를 형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발간한 한국불교회화사 개론서인 〈한국불교회화사〉와 올해 발간한 〈한국불교미술개론〉, 발간 추진 중인 〈한국불교조각사〉 〈한국불교미술사〉까지 나오면 한국불교미술 전반에 걸친 개론서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한국불교조각사〉는 현재 다섯 차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조각 관련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를 반영하다 보니 수정할 부분이 많아졌어요. 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개론서들을 통해 독자들이 불교미술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문 명예교수에게 최근 연구 주제를 묻자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미술 연구”라는 답이 바로 돌아왔다. 지난해부터 쌍계사를 중심으로 건축, 조각, 회화, 공예를 집중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9월 중에는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학술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문 명예교수는 ‘불교미술’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찰을 구성하는 요소에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이 모두 포괄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학들에게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볼 것을 조언했다.

“요즘 공부하는 제자들을 보면 너무 좁게 공부하려고 해요.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분야 밖에 몰라요. 선생이라고 하면 넓게, 분야를 아우르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시적이고 통찰적인 안목이 필요하죠. 저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넓게 보고, 깊게 공부하라.”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문화유산 정책에 불교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다. 이에 문 명예교수는 “불교미술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종단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불교미술을 하려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찰 불사를 해도 이제는 농촌 사찰인지, 도심 사찰인지를 구별해서 해야 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면, 전통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기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조계종단에 불교음악원처럼 불교유산연구원, 불교유산위원회 같은 연구 전문 조직 발족을 제안해왔습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박물관이 있지만, 이는 발굴조사와 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불교미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말미, 85세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묻는 기자에게 문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뭐든 꾸준해야 해요. 공부도 건강도. 꾸준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수적천석(水滴穿石).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노력은 꾸준한 원력을 이루는 길이다. 문 명예교수는 학문을 통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명대 명예교수가 동국대 박물관 특별전 개막식에서 자신이 발견한 대곡리 암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문화유산 연구에 헌신한 공로로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사진은 훈장 수훈 모습.